주요 종단 수장 교체…한국불교 발전 이끈다

2022 종단 결산

3월 성파 종정예하 추대법회
조계종 등 새 총무원장 선출
印분황사, 세종 광제사 낙성
연등회 3년 만에 대면 재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2년은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주요 종단 수장들이 교체되는 변화의 시기였다. 장자 종단 조계종의 신성(神聖)인 종정으로 중봉 성파 대종사가 공식 추대됐으며, 조계종 · 천태종 등 주요 종단 총무원장이 교체됐다.

조계종은 3월 30일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를 조계사에서 봉행했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3월 26일 임기 시작과 함께 이날 추대법회에서 처음으로 대중법문을 설했다. 대종사는 "언필칭(言必稱) 한국불교를 '호국불교' 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호국불교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새롭게 출발한다면 우리 마음, 가정, 사회, 국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듯 전한 법어에 세간은 중봉 성파 대종사의 '부드러운 리더십' 에 주목하고 있다. 근엄하고 다가서기 어려운 큰스님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무차(無遮)의 선지식' 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주요 종단 수장들의 교체도 이어졌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진우 스님이 10월 5일 취임했다. 진우 스님은 종도들이 공의를 모아 단일후보로 추대돼 무투표 당선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취임사를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선포한 진우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를 대국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4월 9일 단양 구인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무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의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면서 이웃 종교 · 다문화와 화합하며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겠다. 4차 산업시대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또한 임기 4년 동안 △찾아가는 불교문화 활성화 △비구 · 비구니스님 위상 강화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위한 재가불자 종무 참여 확대와 전문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관음종 제11대 총무원장에는 법명 스님이 7월 14일 취임했다. 법명 스님은 취임사에서 "더욱 본분사를 충실히 하여 관음종단 뿐 아니라 불교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종정예하께서 반석을 다져놓은 관음종단의 위상에 흠이 안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 불교의 신앙적 가치를 확산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는 데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종단과 불교 중흥에 이바지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10월 5일 열린 취임법회에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같은 날에는 관음종 前 총무원장 홍파 대종사가 제9세 관음종 종정으로 추대됐다. 홍파 대종사는 "천태 지의 스님, 고려 제관 스님, 왕자 의천 스님, 경운 원기 스님, 그리고 태허 조사님, 제가 반드시 미묘한 법을 더욱 펴겠다"고 결의에 찬 수락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36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 불사 가운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세종 광제사가 사부대중 원력으로 문을 연 것도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분황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 깨달음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분황사는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한 첫 사찰이다. 수행관, 도서관과 식당이 있는 다목적 건물, 지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갖췄다.

8월 9일 도심 포교 중점 도량의 힘찬 시작을 알린 세종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행정수도이며 정치 · 사회 및 지리적 중요도시인 세종시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월 26일에는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수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시설인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의 착공식이 열렸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된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 는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2013년 처음 계획이 수립된 후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으나 용문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9년만에 비로소 첫삽을 뜬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번지 대지면적 5019.00㎡ 부지에, 건평 1889.19㎡, 연면적 6769.28㎡ 규모로 건립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다. 교육연구시설로, 불교문화유산 연구는 물론 성보의 수리와 보수, 복원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대폭 축소됐던 연등회가 재개된 것도 기쁜 소식이었다. 4월 30일 서울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진행된 연등회에는 10만 연등이 밤하늘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해는 연등회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연등행렬 구간의 거리마다 가득 찬 행렬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에, 불자들의 정성으로 꾸며지던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불교왜곡 · 종교편향 적극 대응…세상 아픔 보듬는 지원도

2022 대사회 결산

올해도 이어진 불교왜곡에
교계, 감시 · 개선 기능 강화
재해 · 전쟁 인한 대중 아픔
각종 캠페인 등 지원 나서



조계종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종교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작한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

올해 불교계는 대사회 이슈가 이어진 해다. 지난해에 이어 잇단 종교편향 논란 사례들이 줄을 이었고 범불교적 차원에서 불교왜곡 · 종교편향 대응에 나섰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연재해와 전쟁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불교계는 대중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다.

불교왜곡 · 종교편향…감시 기능 강화

지난해에 이어 반복돼 온 불교왜곡 · 종교편향에 불자들의 공분은 더해갔고 범불교 차원의 대응 활동도 잇따라 확산됐다.

올해에만 가톨릭 성지화 사업으로 불거진 주어사지 문제와 국공립 및 시립합창단 편향 사례, JTBC드라마 '인사이더' 의 불교폄훼, 신안군 천사섬 사업 논란, 법계도 도용 등 다각도에서 불교왜곡 · 종교편향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조계종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개선 기능 강화에 나섰다. 종교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buddh.kr)를 개설, 종교 침해와 편향 사례를 수시로 수집하고 사안별 대응 조직을 꾸렸다. 조계종은 천주교 성지화 사업관련 연구 및 대응을 위해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 등 사회시민단체와도 연대, 각종 현안 연구사업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재해 · 전쟁 대해 동체대비행

올 한 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불교계는 대중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3월 초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불교계는 자비온정을 나눴다. 이어진 중부지방 집중호우에도 수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불교계를 넘어 대사회적으로도 큰 감동을 줬다.

불교계의 자비나눔은 국외까지 이어졌다. 2월 24일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진행하며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불교계는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긴급 모금 캠페인을 통한 모연 등을 이어갔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도 잇따라 봉행됐다. 불교계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전달한 기금은 40만 달러(약 5억 2400만 원)에 달한다. 또 국가부도로 생명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필수 의약품과 식료품을 꾸준히 지원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불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은 올해도 결국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17~18일 열린 대행선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렸다.

세계 석학 '한자리'…대형 국제대회 잇달아

2022 문화재 · 학술 결산

세계불교학대회 서울대 일원서
대행 선사 10주기 국제 대회
동국대서 불교인식논리학회도
문화재→국가유산 변경 추진돼

2022년에는 굵직한 국제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리며 세계 석학들이 한국을 찾았다. '불교학 올림픽' 이라고 불리는 세계불교학대회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일원에서 열렸다. 세계불교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인 세계불교학대회는 1978년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불교석학 250여 명이 참석해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폭넓은 주제의 발표들이 이뤄졌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동국대에서는 제6차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20여 개국에서 50여 명 발표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불교 인식론, 존재론, 논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 · 논의했다.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 와 '공생의 삶' 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리기도 했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 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미국 · 캐나다 · 독일 · 이스라엘 · 아랍에미레이트 · 대만 · 아르헨티나 등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석학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문제를 되짚고 공생, 통합, 평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동 · 서양을 대표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교 전문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 일본 · 미얀마 · 티베트 등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통칭돼 온 '문화재' 가 '국가유산' 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것도 한 해 동안 이슈가 됐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변경되는 것으로 재화(財貨)의 느낌이 강한 '문화재' 의 '재(財)' 를 '유산(遺產)' 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통칭되며, 하위 분류 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2022년은 불교 성보들의 '환지본처' 가 추진되거나 완료가 잇달았다. 지난 2월에는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하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사로 환지본처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졌다.

'흥천사 동종' 의 경우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보호각을 설치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불교계의 반발로 흥천사로의 환지본처를 논의 중에 있다.

지난 6월에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 도난된 7개 사찰의 성보문화재 25점이 30년 만에 원봉안처로 돌아갔다. 조계종은 이를 기념하는 고불식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봉행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 극복 순례 · 미래청년 포교 '눈길'

2022 신행 포교 결산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시점을 맞아 순례와 걷기명상을 통한 전법포교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었다. 상월결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방생 순례를 매월 한 차례씩 진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조계종 포교원도 순례길 개발에 나섰다. 포교원은 2월 27일 '허응당 보우의 길' 을 발간하고 4월 '창원 용지호수의 길' 을 발간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제주지역 포교사단 포교사 200여 명과 함께 '제주 관음순례길' 제1코스 '관음사 순례길' 을 순례했다. 이어 포교원은 11월 19~20일 구례화엄사와 천은사 일대에서 청년대학생 신행순례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필두로 불자들이 제주 관음사길을 순례하고 있다.

2022년은 각 전법포교 분야에서의 종단 정책지원도 활발히 이뤄졌다. 종단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법 포교를 담당할 전법단도 새롭게 출범했다. 포교원이 5월 27일 개최한 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식에서는 경찰(2010), 청년대학생(2010), 병원(2010), 신도시(성남,2010), 교정교화(2011), 장애인(2011), 체육인(2012), 국제(2013), 어르신(2017) 전법단에 이어 연예인 전법단도 구성됐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운영 · 관리에 관한 령' 제정을 통해 종단 차원의 지원체제도 구성했다. 11월 22일 출범한 연예인전법단은 적조사에 사무실을 두고 단장 탄탄 스님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의 갈등은 6월 23일 조계종 여성불자들의 전국구 결집체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발족으로 마무리됐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25개 교구본 · 말사에서 활동해 온 여성 불자들의 저력을 결집하고 활동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침체된 한국불교를 견인할 대표적인 포교단체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군승 파송 미달사태를 겪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제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을 계기로 군승 수급 및 홍제사 불사 성만에 역주한다는 방침이다. 군승 수급 문제가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인식 전환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독려가 필요한 만큼 군종특별교구는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교구장 능원 스님은 젊은 스님들이 일선 군법당에서 주지직을 소화하며 다양한 사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는 계획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